

공사판 훈련에도 곳곳... K쇼트트랙 '金빛 일념'

대회장 아직도 드릴 소리 요란
장비 운반 아슬아슬하기까지
선수들 훈련환경 너무 어수선

심석희 "다른 신경 쓸 틈 없어"
집중력 잃지 않고 훈련에 열중
경기력 끌어올리는데 총력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현장은 개회식 이틀 앞두고도 대회 준비를 마치지 못한 분위기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 M-2

전 세계 취재진의 허브인 메인프레스센터(MMC)는 물론, 각 경기장엔 공사 인부들이 마바지 공사를 하고 있다.

2일(한국시간) 쇼트트랙과 피겨 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도 형광색 작업복과 보호 헬멧을 쓰고 공사하는 인력들이 작업을 이어갔다.

여기저기서 드릴 소리가 들렸고, 몇몇 인부들은 경기장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장비를 운반했다.

선수들과 취재진이 만나는 공동취재구역에선 두 명의 인부가 큰 사다리를 들고 선수들 뒤로 지나가기도 했다.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러나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대표팀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메인 링크 공사 훈련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

훈련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대표팀 주장 최민정(성남시청)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 때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경기와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본 대회 때도 지금의 집중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 대표팀 계주 멤버인 심석희(서울시청)도 "개인적으로 훈련할 때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서 개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선수들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주변의 우려는 크다. 일부 외신은 원활하지 않은 대회 준비 과정을 꼬집고 있다.

쇼트트랙 경기장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일 코르티나담페초 알파인 스키 관중 수송을 맡을 예정인 케이블카 공사가 대회 전까지 완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위원회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학교 휴교를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 개막을 4일 앞둔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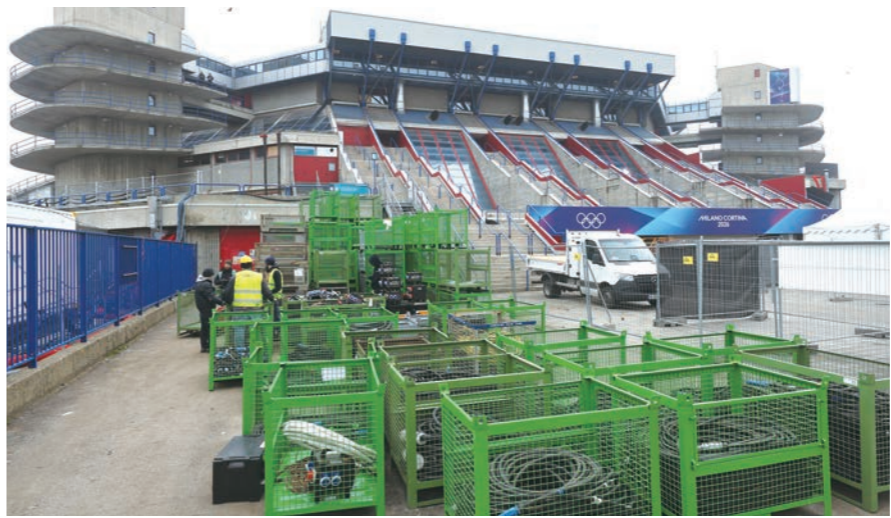
요청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산타줄리아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관중 편의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등 공사가 끝나지 않아 선수들을 파견하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서 우려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회식 전까지 각 경기장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크리스토프 뒤비 조직위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공사 과정이 남아 있지만, 모든 경기는 차질 없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 앞 공사 자재들이 쌓여있다.

황유민, 세계 랭킹 28위
LPGA 투어 개막전 5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6시즌 개막전에서 공동 5위에 오른 황유민(사진)이 여자 골프 세계 랭킹 28위로 상승했다.



황유민은 3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32위보다 4계단 오른 28위가 됐다.

황유민은 전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끝난 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챔피언스 토너먼트(총상금 210만 달러)에서 최종 합계 5언더파 21타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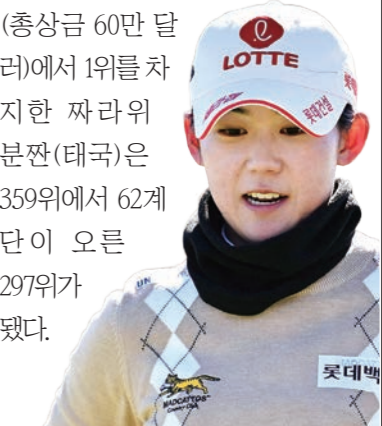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 올해 LPGA 투어 신인으로 뛰게 된 황유민이 세계 랭킹 20위대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챔피언스 토너먼트에서 준우승한 양희영은 세계 랭킹이 79위에서 51위로 경종 뛰었다.

이 대회를 제패한 벨리 코르다(미국)는 세계 랭킹 2위를 유지했다.

1위는 여전히 지노 티피쿰(태국)이며 한국 선수로는 9위 김효주, 10위 김세영 2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드림 윈터투어 인도네시아 여자오픈(총상금 60만 달러)에서 1위를 차지한 짜라위분잔(태국)은 359위에서 62계단이 오른 297위가 됐다.



롯데백

결승골에 기여하기도 했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이 경기 뒤 "이강인은 공을 잘 지키는 중요한 능력을 지녔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수비할 때 압박에서도 공을 잃지 않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강인은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레키프는 "PSG 내부에서는 팀에 기술적으로 이강인보다 뛰어난 선수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

만약 재계약이 성사된다면 이강인은 20대 대부분을 PSG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령탑 교체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었으나 지난 시즌 구단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달성한 엔리케 감독의 입지는 워낙 단단하다.

이강인, 이적 웬말... 재계약 수준 대우

PSG, 2028년 6월까지 연장 검토
엔리케 감독 "그는 중요한 존재"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사진)이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을 떠나려는 커닝 팀과 '재계약'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 이강인이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날 거라는 이적 설이 들었다.

몇 년째 '스타 군단' PSG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벤치와 선발을 오간 그

가 축구선수로서 '고향'이나 다름없는 스페인 무대로 돌아가는 건 실현 가능성이 적잖은 선택지였다.

그러나 스페인 라리가 이적 마감시한인 2일(현지시간)까지 이강인의 이적 '오피셜'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다.

이강인은 결국 2026년 상반기에도 PSG 유니폼을 입고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 그라운드를 누닌다.

이번 겨울 이적시장을 지나면서 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단단해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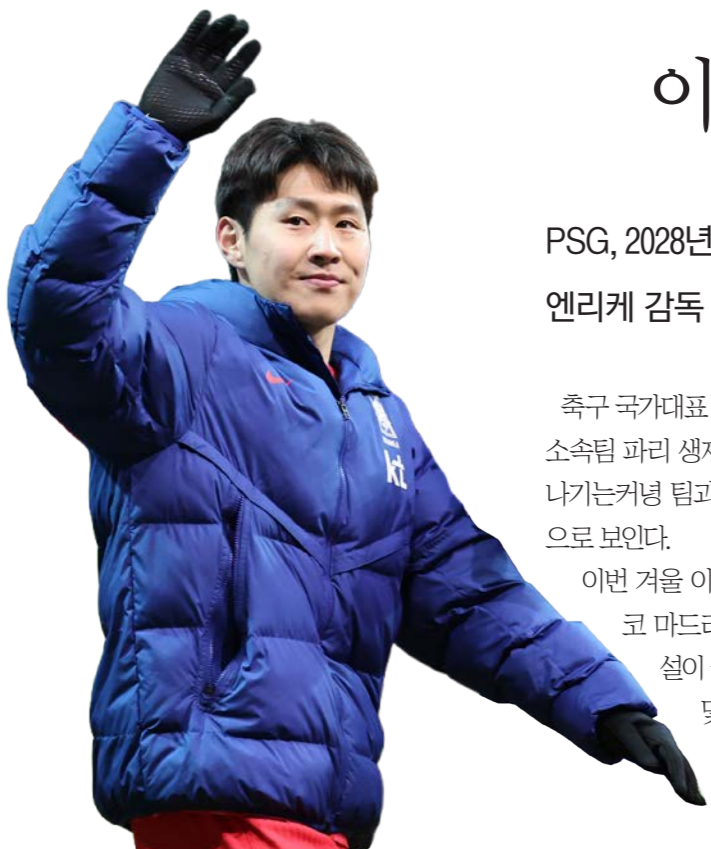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는 3일(한국시간) "이강인은 이번 겨울 아틀레티코 마드리

드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지난여름 파리에서의 미래를 고민했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강인은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쨌든 PSG가 시즌 중반에 이강인을 내보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려 2028년 6월까지의 계약을 연장하는 게 목표"라고 보도했다.

올 시즌 중반 이강인이 경쟁자들의 줄부상으로 이전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면서 펼친 활약상이 PSG 고위층과 코치진에 좋은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은 가장 최근 리그 경기인 스트라스부르전에서는 후반 15분 교체 투입돼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공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